

광주교육청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속 4개 주요 주제 내용은

# 5·18 택시기사 시위·전일빌딩 탄흔 실린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비롯, 광주 4·19, 광주 6월 항쟁 당시 금남로 상황과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금남로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서술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필진은 주제와 관련, '1980년 5월 20일 민주택시기사 시위 장면'(왼쪽)과 '국립과학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기총소사 조사' 사진을 보조교재에 실을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되면서 전국 4개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개발에 들어갔던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 개발 체제로 전환해 향후 보조교재를 집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재에 들어갈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지역사(고교)의 경우 완성본이 마련돼 인쇄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진 자료는 최종 선정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집필 책임자인 조병중 수석대 교수는 앞서 기존 통사·중앙 중심의 교과서 기술 방향이 아니라 지역별·특정 주제별로 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사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 민족의 탄생과 성장, 고난, 좌절, 영광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다.

보조교재는 80개 특정 주제에 따라 서술되고 별도로 광주·전북·강원·충남 지역별 주제도 다뤄진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광주의 경우 민주·평화·인권·지역성

## '임을 위한 행진곡' 탐구활동 주제로...광주6월항쟁도 담아 광주학생운동 전국 확산·전라도 의병 활동 세세히 다뤄

영역에 차별·구제화하는 제작 방침을 반영, 16개 주제에 따라 서술됐다.

16개 주제 중 ▲한말 최대의병항쟁지, 남도 ▲임진왜란과 전라도 의병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 등은 각각 4페이지에 걸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임진왜란과 전라도 의병'이라는 주제에서는 김천일 동상, 포충사, 충장사, 김덕령 시비 등의 사진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최대 의병 봉기가 일어난 지역 상황을 자세하게 풀어낸다. 이 때문에 단 몇줄로 정리,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정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도 적지 않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의미와 김천일, 고경명, 최경회, 고종후, 김덕령 등 많은 호남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킨 내용도 다뤄진다.

'한말 최대의병항쟁지, 남도'에서는 최대 의병항쟁지, 어등산과 죽봉루·서암로·실죽목 등 광주 도로명과 의병장의 관련성을 소개하는 한편, 남한대도발전시 체포

된 호남 의병장과 어등산 의병 전적지 등에 대한 사진도 곁들여진다.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는 ▲전국 최초의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 5·18 민주화운동 ▲금남로에 타오른 6월 민주 함성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 등의 소제목으로 나뉘어 서술된다.

'민주 성지'로 불리는 금남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을 비롯, 광주 4·19, 광주 6월 항쟁 당시 금남로 상황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아낼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진으로는 국립과학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기총소사 탄흔 조사 사진과 민주택시기사 시위 장면 등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구 활동 주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뤄진다.

아울러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만주로 확산되기도 했던 최대 민족운동임에도 국

정교과서에서 국내로만 한정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학생독립운동도 그 의미와 전국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이 자세하게 서술된다.

보조교재는 이외 ▲고인돌 왕국 남도 ▲2000년전 타임캡슐 신장동 ▲전설로 남은 견훤의 땅 광주 ▲광주공원 내 성거사지 5층석탑의 비밀 ▲고려말 왜구침략과 정지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충효동 가마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논쟁 ▲서양촌으로 불린 양림동 ▲정율성 5남매의 독립운동 ▲광주 3·1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사라진 풍경, 경양방죽과 태봉산 ▲예향의 고장 남도 등의 주제에 따라 서술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지역사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인물당 2페이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서술할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근대(10개)와 근현대(10개) 주제로 나뉘어 20개 주제를 정하고 읽기 자료와 탐구활동, 체험학습 장면 등을 활용해 가독성과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순천대 '제1회 장학생의 날' 을 5800명 혜택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순천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순천대가 1982년 종합대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장학생의 날' 행사로써, 국가 장학금 수여자 3457명 외에도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교내 장학금 수상자만 2315명에 이른다. 수여 기준도 32개 부문으로 나뉘어 장학금 지급 대상 폭을 넓혔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순천대는 최근 학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장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순천대 장학생의 날' 행사를 열었다. 순천대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순천대 교내 장학생 수상자들에게 꿈이 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돕는 '멘토' 역할을 위해 7명의 개인 기부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교와 개인기부자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학업에 전념하게 된 학생들이 편지로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교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순천대

가 다른 대학에 비해 장학금 수여 폭이 넓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의도다.

순천대는 올 해 1학기에만 5852명이 69억6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국가 장학금 수여자 3457명 외에도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교내 장학금 수상자만 2315명에 이른다. 수여 기준도 32개 부문으로 나뉘어 장학금 지급 대상 폭을 넓혔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지난해도 1만9323명(국가장학금 1만 245명)이 교내의 장학금을 받았다.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에 견줘 65.5%에 달한다.

박진성 총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장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 기부해준 단체, 개인기부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현장 교육 다채

동강대가 대학생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 눈길을 끈다.

동강대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호텔관광과 1학년학생들을 데리고 '2017 홈&라이프스타일 쇼' 박람회를 둘러보며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최신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트렌드를 살펴보고 창업 의식을 키우고 수요자가 만족할 창업 아이디어 선택, 보유 기술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전남에서 중기청 등과 함께 '대학생 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펼치는 대학은 동강대가 유일하다.

동강대 BI센터는 현장 학습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기업가정신 및 사업계획 수립' 특강도 실시하는가 하면, 창업의식 조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김현철 창업지원단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학습 기회를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교수들 '대학다운 대학' 회복 팔 걷었다

### 광주전남교수연합 창립총회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성·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창립준비위원

회는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와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대학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대학의 역할·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은 또 '대학을 대학답게'라는 주제의 기념토론회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대학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정상화 문제를 비롯, 대학의 사유화 현황, 교원총원율·전임교원강의분담비율 등 대학평가지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시행하는 비정규직 교원·시간강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등이 거론됐다.

오기석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처장은 "대학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하부기관이나 취업준비기관이 아니다"면서 "대학다운 대학의 회복, 대학과 지역의 민주화를 위해 꼭 해야 할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남부대 학생순찰대 "내 학우 내가 지킨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학생순찰대'는 학교 주변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최근 광주광역시경찰청과 남부대 범죄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부터다.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밤 8~10시 2

명씩 한 조를 이뤄 학교 주변 등을 돌면서 폭행·도난 등의 범죄로부터 또래 학생들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인근의 율리촌,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공원 지역 등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층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